

화요세평



김성식  
조선이공대 교수

사람들에게 종교는 어떤 의미일까? 죽음이 두려워 종교를 만들었다는 사회학자 스펜서의 말을 오랫동안 곱씹어 본 적이 있다. 한낱 찰스 다윈에 앞선 진화론자의 말로 치부해버리기에겐 냉철한 철학적 사유 끝에 나온 말이라 생각할 때이다. 아무리 자기가 믿는 신을 경외하고 찬양하기 위해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일지라도 생명이 무한하다면 과연 신의 영광만을 위해 지극처럼 살아가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 그렇다면 종교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을까? 신학자들은 종교의 기능을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합리적 사고와 과학적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삶과 죽음, 그리고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해석의 틀을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좌절

대기업이 되어버린 한국의 대형교회

과 불안을 느끼는 개인에게 위안을 줄 수 있다고 말한다. 사회적 차원에서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공통된 가치를 제시함으로써 공동체 내부에 연대감과 일체감을 조성하여 사회 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으며, 사회적 무질서와 무규범을 예방하고 억제하여 사람들의 일탈 행위를 방지하는 사회 통제 기능과 함께 사회 변동을 유발하는 힘이 되기도 한다고 말한다.

종교기관 국민 신뢰도 낮아

그렇다면 지금 이 땅에서 어떤 종교가 그 기능을 다하고 있는가를 냉정하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해석의 틀을 제공해주고 불안을 느끼는 개인에게 충분한 위안이 되고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2017년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국민들은 종교기관에 대한 신뢰를 거의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29.9%), 언론기관(10.9%), 종교기관(9.7%), 대학(6.0%), 사법기관(5.5%) 순의 신뢰도에 대한 통계가 발표되었으며, 종교기관 가운데 신뢰도는 카톨릭(32.9%), 불교(22.1%), 기독교(18.9%) 순이었다.

이 땅에 기독교가 전래된 이래 개화와 계몽을 통하여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고 독립을 위한 노력을 전개하였고, 민주주

의 인권을 신장시키는데 큰 역할을 수행하였던 기독교가 어쩌다 이렇게 되고 말았을까? 미국 상원의 리처드 헬버슨 재플 목사는 교회는 그리스도 이동을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옮겨가 제도가 되었고, 유럽으로 가서 문화가 되었고, 미국으로 건너가 기업이 되었다고 했으며, 대형교회의 세습을 비판한 '퀴바디스'의 김재환 감독은 한국으로 와서 대기업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기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윤추구이다. 더더구나 우리나라의 대기업은 최소한의 기업윤리도 저버리면서 정권과의 협잡을 통해 그동안 부를 축적해 왔으며 국민 위에 군림하기까지 했던 게 사실이다. 그렇게 성장한 대기업들 중 지금 국민들로부터 존경 받는 기업이나 기업이 몇 명이나 있는가? 바로 김감독이 지적한대로 한국의 대형교회는 대기업이 되어 있다. 한국 교회가 점점 대형화 되어가면서 사회 전체의 공동선을 실현해 나가야 하는 방향성을 잃어버린 것에 그치지 않고 정치세력에 기대어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급급하다보니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연일 보도되는 대형교회의 회계부정과 부자 세습은 어쩌면 그렇게 대기업과 궤를 같이 하는지 모르겠다. 썩어가는 세상에 소금이 되고 어둠을 밝히는 촛불이 되어야 하는 소명감을 잃어버리고 스스

로 썩어지고 어둠이 되어버린 작금의 현상을 그들은 뭐라고 변명할 것인가? 일부 일탈한 목사들의 잘못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으나 자정능력을 상실한 교인들의 잘못이 크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성공만을 바라며 생활하다보니 진정한 복음의 뜻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린 채 가장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삶을 살아 가고 있지만 많은지 교인들 스스로 성찰하지 못한다면 결국 자기들만의 성에 갇혀 소멸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 이 시점에서 다시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한다면 그곳은 바로 한국이라고 말하는 목회자들이 많은 것은 또 무슨 역설인가?

신앙, 본래 기능에 충실해야

그래도 기운실이 발표된대로 아직도 목목히 구도자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이 땅에 정의가 실현되도록 살아가는 목회자들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그 통계가 20.5%에 불과하지만 말이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사회의 모든 종교기관들이 도덕성과 순결성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특히 기독교의 목회자들은 스스로 더 엄격한 윤리와 도덕을 지니고 신앙 본래의 자세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 더 순결하게 살아가야 할 것이다.

사설  
광주 고용여건 악화 일자리 창출이 해답

노동계의 불참선언으로 광주형일자리사업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광주지역 일자리의 질과 청년취업률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형일자리사업이 무산될 경우 빛그린산단도 심각한 타격을 입을 상황이다. 광주형일자리사업 추진이 절박해진 것이다.

호남통계청이 발표한 '9월 광주·전남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역 실업률은 3.7%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8%포인트 상승했다. 실업자수는 2만9,000명으로 1년전보다 무려 7,000명 증가했다. 1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실업자 숫자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실업을 증가에 따른 부작용으로 취업자의 근무시간도 줄어드는 등 '일자리 질'도 갈수록 저하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통계자료를 분석해보면

목포 고교 시험지 유출 관리 책임 물어야

광주에 이어 목포에서도 시험문제 유출사건이 발생했다. 대학입시에서 내신성적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시험 문제 유출이 잇따르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한 뒤에도 교육당국이 무방비상태였다는 점이다.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친 것이다.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목포 A고교에서 2학년 재학생 B군이 중·고교사 영어과목 시험문제를 빼돌려 조사를 벌이고 있다. 유출된 시험문제는 영어 한 과목이며 B군 단독범행으로 알려졌다. B군은 중간고사를 앞두고, 교사연구실에 들어가 컴퓨터에 저장된 영어문제를 출력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각한 점은 지난 7월 광주지역 모 사립고에서 시험지가 유출된지 3개월 여만에 또 다시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시험문제 유출사건

이 터진 후에도 교육당국은 이에 대한 보완책을 전혀 마련하지 않았다. 실제 교육청 조사결과 이번 사고가 터진 학교의 교사연구실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출입했고 PC보안장치도 취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입시에서 학교내신 성적의 비중이 큰 수시로 신입생을 뽑는 대학들이 늘어나면서 고등학교 시험의 중요성도 그만큼 커졌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각 학교마다 시험지 유출을 예방하는 상조해왔다고 봐야한다. 실제로 광주와 서울에서 잇따라 시험문제 유출된 것만 보더라도 그렇다. 고등학교 시험문제 유출은 그래서 개인의 일탈로만 바서는 안된다. 일선 학교와 교육청의 관리부실 책임을 더 크게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금만 철저하게 관리했다면 이런 문제는 생기지도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지방장 인터넷 '범죄' 관련 규제 장치 마련

인터넷이 급속도로 보급되면서 인터넷이 범죄수법을 습득하는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어 이에 따른 규제가 필요하다. 오토바이 훔치는 법, 만능키를 만드는 법 등을 손쉽게 배울 수 있다는 것이다.

한번은 중학생이 주택가 골목길에 주차된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난 뒤 붙잡혔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당시 오토바이는 시정장치가 돼 있었지만, 인터넷상에서 배운대로 앞바퀴를 발로 한 차례 건여차 잠금진 열쇠를 쉽게 풀 수 있었다고 한다. 인터넷에서 배워 만든 '만능키'를 이용해 키함에 넣었다 빼기를 반복해서

등을 걸어 훔쳤다는 것이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오토바이 훔치는 법' 등을 검색하면 수백 개의 정보가 게시될 정도로 인터넷은 범죄를 부추기는 운상이다. 포털을 운영하는 측은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범죄 수법에 관련된 게시물을 삭제하는 등 자체 검열을 외면해 범죄 피해를 방치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더욱이 청소년 범죄가 급증하면서 수법도 갈수록 대만해지고 있는 추세다. 범죄와 관련된 자료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를 규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재복 고용경찰서 풍양파출소

기고



김조일  
광주소방안전본부장

직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았다. 현장에서 달려가서 현장의 변화를 읽어와 한다. 재난현장은 빠르게 바뀌고 그런 변화를 읽는 단서는 현장에 있다.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변화를 느낄 수 없으며 갑작스런 대형재난에 대처하기도 어렵다.

국민의 안전은 평소에도 끊임없는 훈련과 전술의 개발을 통한 체계적인 재난준비와 재난을 바라보는 인식과 이를 실천하는 대응에 있다. 대형재난과 함께 전문성, 기술성 및 숙련성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으며 아직도 진행형이다.

광주소방은 실제와 유사하고 현장감 있는 재난현장 조건을 만들어 훈련하고 이를 통해 현장에 강한 소방관이 양성될 수 있도록 장비노후율 0%, 구급차 3인 탑승률 100%,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출동현황 분석과 첨단드론 도입 및 드론 전문가 양성, 인력 재배치를 통한 현장대응력 강화 등 날로 달라지는 재난현장에 대응하기 위해 최선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

또한, 숫자에 만족하는 양적 실적이 나 혼련과 전술의 재생산이 아닌 고정된 사고와 경직된 목표에서 벗어나 국민과 소방공무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질적인 생산물을 만들어 내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얼마 전 광주소방에는 작지만 커다란 경사가 있었다. 소방청이 전국 18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재난대비 긴급구조훈련' 평가에서 전국 1위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이는 긴급구조훈련의 계획수립, 재난유형 적정성, 현장대응력 모든 분야를 평가하는 것으로 광주가 재난대응능력에서 가장 뛰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 짜여진 각본대로 모든 환경을 만들어 놓고 준비하고 소방과 모든 유관기관들이 발맞춰 행동하는 훈련방식에서 탈피해 실제 화재현장과 유사한 환경을 만들고 각본없이 실시한 경우, 민간인들의 적극적 참여 유도, 매뉴얼 준수와 체계적인 지휘와 현장대응 등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현장상황을 실시간 영상으로 119 종합상황실과 소방청에 송출하고 실시간 모니터링과 현장과 상황실간 실시간 영상대화 등 첨단방식을 도입해 소방훈련에 대한 새로운 표준모델을 제시했다. 누구나 할 수 있었지만 바로 우리 광주소방이 했기 때문에, 먼저 변화를 수용했기에, 혁신이 될 수 있었던 점이 전국 1위로 이끈 원동력을 만든 것이다.

과거를 답습하는 평범하고 안일한 행동은 앞날을 장담할 수 없다. 역사 속에서 변화는 늘 계속되어 왔고 도전의 기회를 만들었으며 기회가 있는 곳에 혁신이 있었다.

변화와 혁신은 거창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부터 시작하면 된다. 지금하는 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목표를 세운 생산성 향상은 혁신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건설을 위해 모두가 공감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것은 분명하다.

변화와 혁신이 만든 '안전광주 1위'

기고



정조선  
담양군선관위 지도홍보담당

한 선거에 일일이 시간을 할애하여 자신의 투표권을 행사하는 걸 부담스러워하고, 쉽게 현실과 타협하여 소중한 자신의 투표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결국 자신의 의사는 반영되지 않은 채 타인의 의사로 이루어진 결정에 맡겨버리는 것이다. 이러한 결정은 다수 구성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당선자의 대표성을 취약하게 하고, 결국 내부 갈등의 심화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최근 공공기관 및 각종 사회단체에서는 대표자를 선출하거나 중요한의사결정을 하는 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온라인투표서비스를 활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온라인투표서비스란 공공성이 높은 기관·단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발한 온라인투표시스템을 통해 PC, 모바일기기 등 온라인매체를 이용하여 자율적으로 선거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13년에 도입되었다.

온라인투표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휴

대폰과 같이 생활친화형 디지털기기를 통해 어디서든 투표가 가능하도록함으로써 투표 참여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한 단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기존에는 10~20% 정도이던 투표율이 온라인투표시스템을 활용하자 50~60%대로 대폭 상승하였고, 이는 선출된 후보의 대표성 확보로 이어져 대표성 확보로 인한 내적 갈등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온라인투표시스템은 단순히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책 및 안건에 대한 찬반투표, 선택투표, 선호투표 등에도 활용이 가능하여 보다 폭넓게 선거인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으며, 보안성을 높이기 위하여 휴대전화(또는 개인정보)를 이용한 본인인증, 암호화 통신(SSL)을 통한 투표값 전송 등 다양한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실제 2016년 정의당의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경선을 시작으로 2017년 바른정당의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경선 등과 같이 정치권에서도 온라인투표시

스템이 활용되어 신뢰성과 보안성이 입증되었다.

온라인투표시스템 이용 방식은 간단하다. 온라인투표서비스홈페이지를 통해 선거를 등록한 후 이용기관이 후보자의 경력과 공약, 투표에 참여할 대상자 명단과 휴대전화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을 입력하면 투표 준비가 끝난다. 선거 당일 선거인들은 온라인 투표 사이트 주소와 본인 인증번호가 담긴 문자 메시지 또는 이메일을 받게 되고, 투표 사이트에 접속해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원하는 후보자를 선택하면 된다. 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은 현장투표소에서 직원의 안내를 받아 투표할 수 있다.

현재 온라인투표서비스는 바쁜 현대사회에서 놓치지 쉬운 나의 권리를 찾아주는 매개체로서 기능하고 있다. 앞으로도 온라인투표서비스가 널리 활용되어 선거와 투표를 우리의 일상생활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하여 누구나 어디서든 쉽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당신의 소중한 선택, 온라인 투표를 통해

1989년 6월 29일 창간 전남매일 2005년 9월 21일 등록번호 광주가 14(일간)
회장 박협弘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김善男 편집국장 丁正龍
대표전화 062) 720-1000 구독 신청 및 배달안내 720-1098, 010-4601-5323
정치부 (062) 720-1060-62 기획실 (062) 720-1005
경제부 (062) 720-1066-67 논설실 (062) 720-1032
사회부 (062) 720-1050-54 월간국 (062) 720-1006-07
사회2부 (062) 720-1043-45 관리국 (062) 720-1012
문화체육부 (062) 720-1071-72 판매국 (062) 720-1098
사진부 (062) 720-1040 사업국 (062) 720-1011
편집부 (062) 720-1070 광고국 (062) 720-1016-17
기사제보
TEL (062) 720-1050-54
FAX (062) 720-1080-82
E-mail jndn@chol.com
광고문의
TEL (062) 720-1016-17
E-mail jnmi1000@hanmail.net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우) 61234 광주광역시 북구 제봉로 322(중흥동, 삼산빌딩)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처 다원인쇄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기상예보 131
▲응급질병상담 1339 ▲법률구조상담 132
▲미아·가출인 신고 182 ▲인광 알콜음 상담센터 222-5666
▲여성 긴급전화 1366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수도 고장신고 121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전기고장 신고 123
▲응급의료센터 1339 ▲가스사고 신고 383-0019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전남대병원 220-6900
232-3117 ▲조선대병원 220-3114